

#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 1. 자살보도의 신중

### ▲ 2014-112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 <주문>

국민일보 2014년 3월 31일자 9면 「빚더미 눌린 가장들 안타까운 선택」 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4월 2일자 14면 「하루 3명꼴 ‘번개탄 자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국민일보,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 『중년 가장들이 생활고를 비판해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서울에서는 10여년 과일장사를 해온 50대 남성이 카드 빚에 시달리다 과일트럭에서 자살했고, 경기도 고양시에선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7년간 돌봐온 40대 남성이 아버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27일 낮 12시40분쯤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구로디지털단지 5번 출구 인근 주차장에서 고모(5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본인 소유 화물트럭 안이었다. 사흘째 차만 주차돼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걸 수상히 여긴 노점상 이모(55)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고씨는 의식을 잃은 채 잠든 듯 누워 있었다. 119대원이 잠긴 트럭 문을 열었을 때 고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차량 안에서는 빈 소주병 2개와 다 탄 번개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고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 의뢰는 하지 않았다.

서울 대림동 자택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고씨는 가난했지만 성실한 가장이었다. 트럭에 과일과 채소를 싣고 매일 이곳에서 장사를 했다. 그는 결혼 후 식

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다 별이가 시원치 않자 10여년 전 트럭을 구입해 청과물 장사를 시작했다. 새벽에 청과물도매시장에서 과일과 채소를 떼어와 이튿날 새벽까지 팔았다. 열심히 일했지만 장사는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다. 불경기 여파로 지난해 여름부터는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고씨는 공여지책으로 지하철역 인근을 벗어나 아파트 단지 장터에도 나갔다. 기름 값만 더 들었을 뿐 매상은 큰 차이가 없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릿세'를 내기도 벅찼다. 외상으로 받아온 청과물이 썩어 팔지 못하고 버리는 날이 늘어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고에 결국 고씨는 10년간 삶을 지탱해 왔던 낡은 과일 트럭 안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고씨는 불어난 카드 빚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상인에게도 "장사가 너무 힘들다. 빚만 쌓여간다"고 토로했다. 그는 월세로 얻은 단칸방에서 부인, 자녀와 함께 살았다. 최근 월세가 밀리자 집주인이 찾아와 "방세를 내라"고 독촉하기도 했다.

그의 형은 "동생이 일용직으로 일하는 내 처지를 알면서도 최근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느냐"고 했다. 고씨는 차상위계층이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잇느라 바빴던 데다 부인까지 몸이 아파 정부 지원을 신청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를 곁에서 지켜봤던 인근의 한 노점상은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29일 낮 12시50분쯤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모텔에서 70대 노인과 40대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사망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48)와 그의 아버지(75)였다. 객실에선 재만 남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 경제적으로 어렵다. 치매 아버지를 두고 가면 가족들이 힘들 테니 함께 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을 해온 A씨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으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온 효성 지극한 장남이었다. 7년 전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와 요양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사업 실패 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2년 전부터는 집에서 직접 간호하며 지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85929>)

(문화일보)= 『지난 3월 27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주차된 트럭 안에서 고모(50) 씨가 '번개탄(착화탄)'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 남겨진 유서는 없었으며 운전석에 누워 있던 고 씨 곁에는 빈 소주병 2개만 놓여 있었다. 조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트럭에 과일을 싣고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장사해온 고 씨는 몇 년 전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5일 울산 북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낡은 승용차 안에서도 윤모(45)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차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 1개가 놓여 있었다. 제빵기술자로 일하다 빵집이 문을 닫자 일용직 근로자가 된 윤 씨는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월 20만 원인 단칸방 월세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불황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어 구매 제한이나 구매시 연락처를 남기게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번개탄을 피워 가스중독으로 자살한 사람은 1069명으로 지난 2007년 66명에 비해 15.2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자살자 1만3940명의 7.7%에 해당하며 자살방법으로는 목맴(7079명)과 음독(2401명), 투신(2288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급증한 것은 농약이나 다른 도구에 비해 누구나 쉽게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어 주로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많이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기준 하루 평균 2.9명이 숨질 만큼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급증하면서 물리적 접근 제한 등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번개탄 자살로 골머리를 앓던 홍콩에서는 번개탄 구매시 10분 내외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구매 후 전화번호를 기록하게 하는 등 접근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결과 자살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홍진표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교수는 "특정 자살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대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번개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자살을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접근 제한 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02010714272950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서울에서 10여년 과일장사를 해 온 고 모(50) 씨, 경기도 고양시의 A 씨(48)와 그의 아버지(75)가 각각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진 사건을 사회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기사는 경찰의 말을 인용해 『중년 가장들이 생활고를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두 사건 모두 경제적 동기와 가정사를 자살 동기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10여년째 트럭으로 청과물 장사를 해 온 고 모(50) 씨는 가난했지만 성실한 가장이었으나 불경기로 형편이 더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 A 씨(48)는 효성 지극한 장남이었으나 사업에 실패한 데다 치매 아버지(75)를 두고 가면 가족들이 힘들어 할 것을 걱정해 역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문화일보 역시 서울의 고 모(50) 씨와 울산에서 제빵 기술자로 일하다 일용직 근로자가 된 윤 모(45) 씨가 각각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진 사건 기사를 사회면에 눈에 띄게 배치했다.

기사는 경찰의 말을 인용해 두 사람이 『생활고를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경제적 동기와 가정사를 자살 동기로 보도했다. 기사는 이에 덧붙여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편집자는 큰 제목을 「하루 3명꼴 ‘번개탄 자살’」로 달았다.

국민일보,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사건이라며 자살 수단을 부각시키고, 사회면에 머릿기사 등으로 크게 다뤘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는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잘못 생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4-1128 신문윤리강령 위반

光州日報 발행인 김 여 송

#### 〈주문〉

光州日報 2014년 3월 31일자 7면 「중3 짓누른 ‘삶의 무게’/정신지체 2급 부모에 조부모도 장애·치매 앓아/실질적 가장 역할…가족 모두 잠든 새 목숨 끊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0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장례식장. 50대 남성이 장례식장 내 영안실 앞을 쳄바퀴 돌 듯 돌았다. 지난 27일 아파트에서 투신, 15세 짧은 생을 마감한 아들이 누워 있는 영안실이다. “내 아들 죽지 않았어. 다시 살아 올거야.”

정신지체 2급인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 듯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영안실 앞을 맴돌았다. 아들 시신이 화장장으로 떠난 뒤에도 그의 중얼거림과 서성거림은 계속됐다.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15살 난 중학생 A 군이 지난 27일 숨졌다. 밤 10시 30분께 함께 살던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스스로 투신했다. 유서는 없었다.

15세 중학생의 어깨를 짓누르며 죽음으로 내몬 ‘무거운 짐’은 도대체 무엇이였을까.

중학교 3학년,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기에 바쁜 시기지만 A 군은 할아버지·할머니에 아빠·엄마, 동생까지 6명을 책임지는 가장이나 다름없었다.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뇌병변 장애인이었고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정신 지체 2급 장애인인 아버지와 같은 병력으로 병원에 입원중

인 엄마도 A 군의 짐을 덜어줄 수 없었다. 투정 부리기 좋아하는 초등학교 5학년인 동생도 외면할 수 없는 삶의 무게였다.

학교를 가는 시각, 요양보호사가 장애 조부모를 챙겼지만 가슴 한 켠에는 함께 있지 못하는 불안함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학교 친구들은 A 군의 어려운 기색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친구들과 밝게 어울렸다. 잠깐 다녔던 학원비를 내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도와주겠다는 지인도 나타났지만 “괜찮다”며 거절할 정도로 자립심도 강했다. 다섯식구의 실질적 가장역할을 하면서도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방과후에는 다음날 먹을거리를 챙기고 집안 청소 등을 책임져야 했지만 15살 짜리 중학생은 힘들어 하지 않았다. 가끔 초등학생 동생과 티격태격하면서도 잠들 땐 이불을 챙겨주는 어른 스런 형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병(病)으로 둘러싸인 가족의 무게는 A 군의 좁은 어깨로는 감당하기엔 버거웠다.

감수성 예민한 시기, 가족의 병은 어린 중학생의 어깨를 짓눌렀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오는 적은 돈 으로는 5인 가족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15살짜리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와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되는 할머니에 정신 병력인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참아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한숨 돌릴 틈도 없었다.

울분을 속으로 삭이다 보니 삶의 무게는 점점 더 힘들어만 갔다. 결국 A 군은 어두운 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살기 힘들어 막막해 울부짖는 A 군의 절규를 들어줄 사람도, 그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덜어줄 보호막도 멀리 있었다. A 군 동생(12)은 장례식장에서도 “형, 말도 없이 어디 갔어”라며 울먹였다. 동생은 형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은 진행형이다.

한편, 광산경찰은 A 군이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들과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고민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9619160052090100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뇌병변 장애 할아버지, 치매를 앓는 할머니,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병약한 부모, 초등학교 5학년 남동생과 함께 어렵게 살아온 15세 중학교 3학년 A 군이 자살한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 사건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3월 27일 밤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고, 유서는 없었다.

기사는 숨진 A 군이 겪은 어려운 사정을 취재기자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것처럼 내러티브 형식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기사 내용 가운데 『15살짜리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와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되는 할머니에 정신 병력인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참아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살기 힘들어 막막해 울부짖는 A 군의 절규를 들어줄 사람도, 그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덜어줄 보호막도 멀리 있었다.』 등 대목은 자살이 A 군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같은 느낌을 주는 부적절한 묘사다.

유서가 없는 상황에서 『병(病)으로 둘러싸인 가족의 무게는 A 군의 좁은 어깨로는 감당하기엔 버거웠다.』 『울분을 속으로 삭이다 보니 삶의 무게는 점점 더 힘들어만 갔다.』 등 대목도 객관적 사실보도가 강조되는 자살 사건기사로는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감성적이다.

정신지체 2급 장애 부모 슬하이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다는 식의 기술도 그 객관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전문가들은 자살의 원인은 대개 복잡적이므로 언론은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 기사는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 충동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4-122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송 현 승
2.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 〈주문〉

연합뉴스 2014년 8월 13일 06:00 송고 「美경찰, 로빈 윌리엄스 ‘자살’ 확인… “허리띠로 목매”(종합2보)」 제목의 기사, 내일신문 8월 13일자 8면 「로빈 윌리엄스 ‘자살’ … “허리띠로 목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연합뉴스,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티뷰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로빈 윌리엄스(63)는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의 공식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린 카운티 경찰국 검시관실 소속 키스 보이드 경위는 12일 샌 라파엘에 있는 경찰국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윌리엄스의 개인 비서는 11일 아침 늦은 시간이 되도록 윌리엄스가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걱정이 들어 오전 11시 45분께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 55분께 전화로 신고를 접수하고 정오께 현장에 도착했으며, 낮 12시 2분께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은 윌리엄스의 시신이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허리띠의 한쪽 끝은 옷장 문 윗부분과 문틀 사이에 끼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윌리엄스의 목에 감겨 있었다는 것이다.

시신의 자세는 앉은 것과 유사했으나 바닥에 닿지는 않고 살짝 떠 있는 상태였으며 오른쪽 어깨 부분이 문에 닿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보이드 경위는 “당시 윌리엄스 씨는 몸에 온기가 없고 사후 경직이 일어난 상태였다”며 “사망한 지 적어도 몇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 예비조사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목을 매달아 생긴 질식사라고 밝혔으나,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윌리엄스의 시신 근처에 흉기가 있었으며, 왼쪽 손목에 깊이 얇은 상처가 있었다고 보이드 경위는 전했다.

흉기의 날카로운 가장자리 부분과 왼쪽 손목에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붉은 물질이 묻어 있었으나 이것이 윌리엄스의 몸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7064965>)

(내일신문)=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티뷰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로빈 윌리엄스(63)는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의 공식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린 카운티 경찰국 검시관실 소속 키스 보이드 경위는 12일 샌 라파엘에 있는 경찰국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윌리엄스의 개인 비서는 11일 아침 늦은 시간이 되도록 윌리엄스가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걱정이 들어 오전 11시 45분께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윌리엄스의 시신이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허리띠의 한쪽 끝은 옷장 문 윗부분과 문틀 사이에 끼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윌리엄스의 목에 감겨 있었다는 것이다.

보이드 경위는 “당시 윌리엄스 씨는 몸에 온기가 없고 사후 경직이 일어난 상태였다”며 “사망한 지 적어도 몇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 예비조사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목을 매달아 생긴 질식사라고 밝혔으나,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윌리엄스의 시신 근처에 흉기가 있었으며, 왼쪽 손목에 깊이 얹은 상처가 있었다고 보이드 경위는 전했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미국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자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는 샌프란시스코 특파원이 현지 경찰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을 인용해 작성한 기사를 보도했고, 내일신문은 연합뉴스 기사를 대부분 원문 그대로 전재했다.

기사는 『경찰은 윌리엄스의 시신이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허리띠의 한쪽 끝은 옷장 문 윗부분과 문틀 사이에 끼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윌리엄스의 목에 감겨 있었다는 것이다』 『윌리엄스의 시신 근처에 흉기가 있었으며, 왼쪽 손목에 깊이 얹은 상처가 있었다』 등 자살 사건 현장의 모습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허리띠를 이용한 자살 사건이라며 자살 수단을 부각시키고, 이를 제목에까지 반영했다.

윌리엄스가 국내에도 잘 알려진 유명 배우라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이 큰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이 같은 자극적인 표현과 제목 달기는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로 다룬 위 기사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만들고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 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4-133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 〈주문〉

경향신문 2014년 11월 4일자 14면 「인천서 생활고 일가족 3명 동반자살/“마이너스 인생… 그냥 떠나게 해달라” 유서」 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11월 4일자 A31 면 「생활고’ 엄마·딸 막다른 선택, 뒤늦게 안 아빠마저…/우리 가족 슬프지 않고 행복하게 죽습니다/12살 소녀 마지막 편지」 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11월 4일자 11면 「12세 딸 “아빠 미안… 엄마랑 먼저 갈게” 생활고에 세상 등진 모녀, 뒤따른 家長」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경향신문, 매일경제,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향신문)= 『빛더미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50분쯤 인천 남구 한 빌라에서 이모씨(51)와 부인 김모씨(45), 중학교 1학년 딸(12)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이씨의 딸 담임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 가족은 안방에 나란히 누워 숨진 채였고, 타다 남은 연탄과 김씨와 딸이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이들의 죽음은 딸이 등교하지 않자 집을 찾아간 담임교사가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이씨의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없는 단순 질식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빛더미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

사업을 하던 이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대한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김씨가 아파트관리소 등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지난 9월 퇴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김씨는 마이너스 통장과 보험 대출금의 만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괴로워했고 지난 9월에도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방에서 발견된 김씨의 유서에는 “언제나 돈이 없다. 마이너스 인생이다. 마이너스는 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 추한 꼴 보기 전에 먼저 간다”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이씨의 딸도 “그동안 아빠 말 잘 안 들어서 죄송하다.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엄마와 있는 게 더 좋다. 아빠, 엄마와 나의 시신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딸이 먼저 자살한 뒤 이씨가 뒤따라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채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씨 부부의 계좌를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가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었고, 긴급복지를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월 발생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하는 ‘송파 세모녀 법’을 추진해왔으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1411032148025&code=940202](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1411032148025&code=940202)

(매일경제)= 『“우리 가족은 슬프지 않고 행복하게 죽는다.”(중1 딸)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에 이어 생활고 비관으로 추정되는 한 가족 자살 사건이 인천에서도 일어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시 남구 15평 남짓한 한 빌라 안방에서 이 모씨(51)와 이씨 아내(45), 딸(12·중1)이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안방에는 타다 남은 연탄과 모녀가 숨지기 전 번갈아 쓴 듯한 A4 크기 유서 4장이 간이식탁 위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출입 흔적이 없고 부검 결

과 타살 혐의는 없다”고 밝혀 처지를 비관한 자살로 추정된다. 유서 내용을 보면 극단적 선택은 이씨 아내 제의로 이뤄졌다. 딸에게 생을 마감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딸은 그렇게 하겠다며 엄마 제안에 동조했다. 딸은 “그동안 부모님 말을 안 들어 미안하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 않다. 행복하게 죽는다”고 적었다. 아내는 남편에게도 행복하게 죽는다는 편지를 남기며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절대 하지 말고 함께 떠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적었다.

유서 내용을 볼 때 모녀가 먼저 숨진 뒤 남편이 뒤따라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웃과 왕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조용하지만 평소 가족 간에는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은 경매를 하다 실패했고, 실질적 가장인 아내마저도 지난 9월 영세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3일은 마이너스 통장 만기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들이 가족 관계도 좋다고 해 처지를 비관한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금융 거래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1384273&year=2014](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1384273&year=2014)

(서울신문)= 『생활고를 겪던 부인과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를 발견한 가장이 뒤따라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이모(51)씨와 부인 김모(45)씨, 딸 이모(12)양이 숨져 있는 것을 이양 담임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발견했다. 교사 허모씨는 “이양이 이틀간 등교하지 않고 연락도 안 돼 집을 방문했는데 기척이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일가족 3명은 안방에 반듯이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으며 방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 김씨와 이양의 유서 5장이 발견됐다. 김씨는 유서에 마이너스통장 대출 만기일이 오는 12일로 다가오면서 겪는 심리적인 압박과 비관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생활고로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



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 달라. 뒷일은 남편이 해 줬으면 한다”고 적었다. 또 딸인 이양도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게 더 좋다”고 쓰여 있었다.

경찰은 유서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씨와 이양이 먼저 연탄을 피워 목숨을 끊은 뒤 이들을 발견한 이씨가 뒤따라 같은 방법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올 초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폐기물업체에 취업했으며, 김씨는 지난 9월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은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씨 부부의 부채와 재산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금융거래 내용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삼았던 이씨가 경기 악화로 빚 독촉에 시달리며 극한 선택을 한 것 같다”면서 “이들 가정은 긴급복지지원 신청한 적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 계층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401101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 매일경제,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생활고를 겪던 남편 이 모(51)씨와 부인 김 모(45)씨, 중학교 1학년 딸(12) 등 일가족 3명이 함께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부인 김 씨와 딸이 먼저 연탄을 피워 사망한 뒤 이들을 발견한 이 씨가 같은 방법으로 뒤따라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사들은 이들의 죽음과 관련해 본문과 제목에서 ‘생활고’를 언급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생활고 등의 어느 한 가지 요인이 계기가 되었다는 식의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또 이들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면서 중학교 1학년 딸이 남겼다는 유서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또한 매일경제, 서울신문 편집자는 딸

의 유서를 인용해 「우리 가족 슬프지 않고 행복하게 죽습니다/12살 소녀 마지막 편지」, 「12세 딸 “아빠 미안… 엄마랑 먼저 갈게”」와 같은 감성적인 표현을 각각 넣어 제목을 달았는데 이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다.

경향신문 기사는 본문에도 없는 「동반자살」 표현을 제목에 넣었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사건의 정황상 미성년자인 딸은 비록 유서를 남기기는 했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김씨의 의사에 따라 죽음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 신문 기사 모두 타다 남은 연탄에 대해 언급, 연탄이 자살 수단임을 전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살에 사용된 수단이나 도구를 전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위 기사들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5-103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방 상 훈
2.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3. 세계일보 발행인 조 한 규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종 승

### 〈주문〉

朝鮮日報 2015년 1월 26일자 A12면 「같은 부대 관심兵 둘, 1명은 母親 살해 1명은 자살」 제목의 기사, 경향신문 1월 27일자 14면 「“지적장애 언니, 홀로 돌보기 지쳐…” 20대 유서 남기고 자살」 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1월 27일자 9면

「지적장애 1급 언니 홀로 돌보던 20대 자살」 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1월 27일자 10면 「마트서 알바하며 장애인 언니 돌보던 20대 “지쳤다” 자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朝鮮日報,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 『지난 22일 서울 도봉구 화재 현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강원도 화천 모 육군 포병대대 소속 강 모(22) 일병이 지목됐다. 강 일병은 숨진 여성의 아들이다. 같은 날 같은 부대 소속 하 모(22) 이병은 첫 휴가를 나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병사는 모두 부대에서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었다.』(중략)

한편 육군은 강 일병과 같은 부대 소속 하 모 이병이 휴가를 나갔다가 지난 22일 오후 6시 15분쯤 울산시 남구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부대에 전입한 하 이병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 등 가정 문제 고민으로 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A급 관심병사였던 하 이병은 ‘혼자 떠나게 돼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A급 관심병사였던 하 이병이 구타나 가혹 행위를 당했는지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5/201501250233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5/2015012502334.html)〉

(경향신문)= 『30대 지적장애 언니를 수년 동안 돌봐오던 20대 여성이 “지쳤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여성의 마지막 소원은 언니를 좋은 보호시설로 보내달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도 남겼다.

지난 24일 오전 10시13분쯤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 주차된 류 모 씨(28)의 낡은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류씨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식당 주인 김 모 씨(28)는 “아침부터 낯선 차량이 주차돼 있어 내부를 들여다보니

뒷좌석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류 씨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지적장애 1급인 언니(31)를 혼자 돌봐왔다. 경찰은 숨진 류 씨의 휴대폰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류 씨는 유서에 “할 만큼 했는데 지쳐서 그런다. 내가 죽더라도 언니는 좋은 시설보호소에 보내달라”며 “장기는 다 기증하고 빌라 보증금(500만원)도 사회에 환원하길 바란다”고 적어 놓았다.

숨진 동생은 두 살 때인 1988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곧바로 재가하는 바람에 광주시 삼촌 집에 맡겨졌다. 지적장애를 앓는 언니는 그나마 삼촌과 조부모의 보살핌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2007년 언니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면서 동생은 언니를 찾아 전국을 헤맸다. 당시 동생은 20세, 언니는 23세였다. 동생은 수소문 끝에 부산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지내는 언니를 극적으로 만났다. 동생은 이때부터 언니를 찾아 옷가지와 음식 등을 넣어주며 보호자 역할을 했다.

부산에 있던 언니는 2012년 대구 남구의 한 장애인시설로 옮겼다. 이 기간에도 언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류 씨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언니가 ‘함께 살고 싶다’고 해 지난 13일부터 동생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보증금 500만원, 월세 36만원)로 옮겨 생활해왔다”며 “동생이 언니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지쳐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전했다.

류 씨의 언니는 거동이 가능하지만 양손을 떨고 간간이 어린애처럼 소리를 지르는 등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다. 언니는 “동생이 며칠 전 높은 곳에서 같이 뛰어내리자고 했지만 무섭고 겁이 나서 거절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1501262143175](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1501262143175)〉

(세계일보)= 『지적장애인 언니(31)를 홀로 보살펴온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26일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13분쯤 대구 수성구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류 모(28·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류 씨 소유의 EF쏘나타 승용차

는 시가 40여만원으로 장애인 차량이었다. 류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할 만큼 했는데 지쳤다’며 ‘언니는 좋은 시설보호소에 보내주세요. 장기는 다 기증하고 월세 보증금도 사회에 환원하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겼다.

류 씨는 지적장애 1급인 언니의 거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갓난아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유아기 때 연락이 끊겼다. 류 씨는 자신과 언니를 키워준 할머니가 지난해 세상을 떠나자 마트 아르바이트로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언니를 챙겼다. 언니는 광주와 경남 통영, 부산 등의 장애인시설을 떠돌다 2012년 7월 대구시내 장애인시설보호소로 옮겨왔고 지난 13일에는 동생과 함께 살고 싶다는 시설을 나왔다. 류 씨는 돌아온 언니와 대구 남구 봉덕1동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36만원짜리 원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류씨는 두 달치 월세가 밀린 상태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언니는 매달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고 장애인 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의료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이 생기는 등 언니의 상태가 악화되자 이를 비판해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류 씨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후략)』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1/26/20150126005432.html>>

(한국일보)= 『장애인 언니를 돌보며 근근이 살아온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언니를 부탁한다며 장기 기증과 월세보증금의 사회 환원을 희망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13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류 모(28·여) 씨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식당 주인 김 모(28) 씨는 “가게 문을 열고 뒷편 주차장으로 갔더니 차 운전석에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바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차량 안에는 현금 1만3,000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 등이 남아있었다.

류 씨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남긴 유서에 ‘언니(31)와 같이 있어도 힘들고,

떨어져 있어도 힘들다. 할 만큼 다했는데 지친다. 내가 죽더라도 언니는 좋은 시설보호소에 보내달라. 장기는 다 기증하고 월세보증금도 사회에 환원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광주에 살았던 류 씨에게는 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류 씨가 태어난 1987년 숨졌고 어머니는 4년 후 재가하면서 집을 나갔다.

언니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길도 잃어버리고, 말도 어눌하며 느닷없이 소리도 지르는 등 장애 증세를 보이다 2001년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할머니와 삼촌은 그래도 언니를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다.

언니는 2004년 가출한 후 광주와 경남 통영, 부산의 장애인시설을 떠돌다 2012년 7월 대구 남구의 시설로 자리를 옮겼다. 2006년 대구로 온 류 씨도 대형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언니에게 옷과 음식 등을 사주며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했다.

병뚜경으로 몸을 굽는 등 자해를 하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언니는 이달 13일 시설을 나와 동생과 한 집에 살게 됐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36만원짜리 원룸에 살던 류 씨는 이날 언니와 제주도 여행을 하며 “같이 죽자”고 권유했다고 한다. 지난 20일에는 빌라 방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으나 연기를 본 주민의 신고로 구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로 약간의 돈도 모은 류 씨가 장애가 전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언니에게 절망해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류 씨를 발견한 시간이 늦어서 유언처럼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v/88ae173e2a1642758f4391d4cabdc2ef>>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는 육군 모 부대 하 모(22) 이병이 휴가 중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건과 같은 부대 강 모(22) 일병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건을 묶어 사회면 톱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하 이병이 아버지의 건강 등 가정 문제 고민으로 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하 이병이 남긴 것으로 전해진 ‘혼자 떠나게 돼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유서 내용도 소개했다. 편집자는 이를 근거로 ‘자살’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기사는 지적장애 언니를 돌보며 어렵게 살아 오던 류 모(28)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회면 톱으로 보도했고, 세계일보와 한국일보도 사회면에 돌보이게 배치했다.

기사들은 류 씨의 죽음과 관련해 본문과 제목에서 지적장애 언니를 돌보다 지쳐 죽음을 선택했다고 기술하고, 『할만큼 했는데 지쳤다』는 내용을 담고 장기 기증 의사까지 밝힌 유서를 인용하는 등 류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또한 기사들은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동생이 언니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지쳐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경향신문), 『정신질환이 생기는 등 언니의 상태가 악화되자 이를 비관해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류 씨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세계일보), 『아르바이트로 약간의 돈도 모은 류 씨가 장애가 전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언니에게 절망해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일보)고 각각 보도했다.

위 기사들은 군 적응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지적장애 언니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것 등이 자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는 자살에 이르기까지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요인이 계기가 되었다는 식의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朝鮮日報 기사는 하 이병이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하고, 경향신문, 한국일보 기사는 류 씨가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하는 등 자살 수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처럼 자살에 사용된 수단이나 도구를 전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일이다.

위 기사들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

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자칫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다.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